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Relevant Variable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정미영(Mi Young Jung)¹⁾

문혁준(Hyuk Jun Moon)²⁾

ABSTRACT

Variables studied in relation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ere child's sex, grade, and ego-resilience maternal employment, parents' age, parents' academic background,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Subjects were 548 4th, 5th and 6th grade students and their mothers.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school adjustment varied by child's grade in school and ego-resilience, parents' age, father's academic background,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Children with higher ego-resilience, whose mothers showed more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who perceived more social support from peers, family, and teachers showed higher adjustment to school life. Among these, support of peers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Key Words : 학교생활적응(children's school adjustment),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어머니의 정서표현성(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사회적 지지 지각(perception of social support).

I. 서론

오늘날 사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급격하게 그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으며 세계화의 분위기속에 무한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에게 사회 변화에 발맞춘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동은 미처 준비도 갖추기 전에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 높은 수준의 성취를 요구하는 주변의 압력으로 적응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신윤자, 2004). 아동의 중요한 삶의 장면인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¹⁾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석사

²⁾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k Jun Moo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Catholic University, San 43-1 Yockkok 2-dong, Wonmi-gu, Buchun City 420-743, Korea
E-mail : mhyukj@unitel.co.kr

계속적으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의 부적응 행동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박은주, 2004). 이는 모든 아동이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함을 보여준다. 아동이 가정 이외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아동에게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통하여 아동의 가치관, 동기, 태도 등의 행동경향 발달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학교생활에의 적응이 아동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 특히 초등학교는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시기로, 아동에게 학교집단에서의 적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훗날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의 행동이 모든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같은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다(류운석, 1996). 즉 교사와의 관계, 또래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어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적극적으로 학교활동에 임하며, 학습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이야기 한다.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관계에 있어 스스로의 요구에 맞게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바람직하게 환경을 수용하여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스러운 상태가 유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Ladd, Kochenderfer와 Coleman (1996)은 학교생활적응을 학교 환경에 대한 아

동의 지각과 감정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들은 학교생활적응을 아동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갖고, 편안해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적응의 각 영역은 이후 교육적 진보의 중요한 전조가 된다 하므로 학교생활적응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

아동은 부모와 타인과 함께 많은 환경 안에 놓이며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워 가는 동시에, 학교생활을 통해 얻는 또 다른 경험은 지금까지 형성된 인성과 태도를 좀 더 성숙하게 변화시킴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박금란, 1998). 아동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자신감과 존중감을 키워가며, 올바른 사회규범과 가치, 태도를 익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미래에 건강한 청소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학교생활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이 무엇인지,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크게 개인 변인과 사회 변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일차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 내 부모와 관련한 변인을 따로 나누어 아동 변인, 부모 변인, 그리고 사회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아동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별(김송자, 2005), 학년(장우민, 2004), 자아탄력성(고근중, 2006) 등이 연구되어져 왔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수경(2004)은 남아가 여아보다 학교생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만족하며 높은 적응을 보였다고 하였고, 박소혜(1995)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학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아동의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신진희, 2005). 자아탄력성은 급격한 사회 환경적 변화로 인해 그러한 특성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한 융통적이고 탄력적인 개인의 특성으로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송영경, 2006). 자아탄력성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고근중(2006)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및 활력성 수준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의 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학대아동이나 이혼가정의 아동 같은 특별한 조건에 놓여있는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유성경 · 심혜원, 2002; 현은민 · 박혜영, 2005)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의 부모 변인에는 어머니의 취업유무(김희수, 2002), 부모 연령(김승봉, 2005), 부모 교육수준(노미숙, 2003), 가정 월소득(정미선, 2003) 등이 연구되어져 왔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면, 김희수(2002)의 연구에서는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자녀 간 학교생활 적응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부모의 연령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연구한 유복귀희(2003)는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고, 김덕건(1998)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가정의 월소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는 가정환경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 및 적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박소혜, 1995)고 하였다.

최근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과 자기발견을 강

조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개인의 정서 자체에 대한 관심과 정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이주일 외, 1997), 부모가 언어적 · 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비억압적이고 개방적인 정도인 정서표현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언어적 · 비언어적 행동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기 때문에(김호정, 2001)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능력에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적응을 개체가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행동을 변화시켜 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생각해 볼 때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능력인 감정의 조절능력과 수용능력, 통제력, 사회적 기술, 또래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백미애, 2002; 윤영란, 2005)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짐으로,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사회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줌으로써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한미현, 1996). 기존의 연구들에서 친구, 가족 구성원이 심리적 · 물질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신체적 · 심리적 건강을 보인다고 보고하여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 신체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

작했다(Kaplan et al., 1983; Mitchell et al., 1983).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을 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반응, 생활만족, 심리적·신체적 건강 그리고 성인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추이현, 2002). 따라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자로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대상은 가족, 친구, 교사 등으로 밝혀졌으며(Deroiser & Kupersmidt, 1991), 어머니와 또래의 지지에 대한 지각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또래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는 연구결과(이수경, 2004)도 있다.

한편,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변인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본 연구, 특수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적응 연구는 많았지만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같은 정의적인 발달이 만 10세(4학년) 이후부터 형성된다는 근거(Block & Kreman, 1996)에 따라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 변인을 아동 변인(성별, 학년, 자아탄력성), 부모 변인(어머니 취업유무, 부모 연령, 부모 교육수준, 어머니 정서 표현성, 부모 월소득), 사회 변인(사회적지지 지각)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변인이 무엇인

지 알아봄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급변해 가는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또는 프로그램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성인보다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응하려는 아동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학부모, 교사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 변인(성별, 학년, 자아탄력성), 부모 변인(어머니 취업유무, 부모 연령, 부모 교육수준, 어머니 정서 표현성, 부모 월소득), 사회 변인(사회적지지 지각)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 변인(성별, 학년, 자아탄력성), 부모 변인(어머니 취업유무, 부모 연령, 부모 교육수준, 어머니 정서 표현성, 부모 월소득), 사회 변인(사회적지지 지각)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5·6학년 아동과

<표 1> 연구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N=548)

구분	변인	구분	빈도(%)
	학년	4학년	94(17.2)
		5학년	207(37.8)
		6학년	247(45.1)
아동 변인	성별	남	279(50.9)
		여	269(49.1)
	출생순위	외동이	105(19.1)
		첫째	230(42.0)
		둘째 이상	213(38.9)

그들의 어머니이다. 배포된 질문지는 아동용과 부모용 각각 600부였는데, 아동용은 568부가 회수되고, 어머니용은 562부가 회수되었다. 이 가운데 어머니용 질문지와 아동용 질문지 중 어느 한 쪽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질문지를 제외시키고, 548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 아동의 학년은 4학년이 94명(17.2%), 5학년이 207명(37.8%), 6학년이 247명(45.1%)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아가 279명(50.9%), 여아가 269명(49.1%)으로 남아가 조금 더 많았다. 아동의 출생순위 첫째 자녀 이상인 경우가 230명(42.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 아동 부모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대상 아동 부모의 평균 연령은 어머니가 40.18(SD=3.15)세, 아버지가 43.0(SD=3.73)세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이 258명(47.1%)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86명(52.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더 높은 편이었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이 208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표 2> 연구 대상 아동 부모와 가정의 인구학적 배경 (N=548)

구분	변인	구분	M	SD
부모 변인	연령	아버지	43.00	3.15
		어머니	40.18	3.73
구분	변인	구분	어머니 빈도(%)	아버지 빈도(%)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86(52.2)	164(19.9)
		전문대졸 이하	140(25.5)	126(23.0)
		대졸 이상	122(22.3)	258(47.1)
부모 변인	직업	전업주부	380(69.3)	0(.0)
		기업 경영주	2(0.4)	52(9.5)
		회사원	50(9.1)	208(38.0)
		상 인	23(4.2)	62(11.3)
		교육자	37(6.8)	23(4.2)
		정치가	0(.0)	1(0.2)
		법률가	0(.0)	4(0.7)
		공무원	9(1.6)	49(8.9)
		(한)의사, 약사	1(0.2)	4(0.7)
		언론인	1(0.2)	3(0.5)
		종교인	1(0.2)	4(0.7)
		예술인	4(0.7)	10(1.8)
		건축업	1(0.2)	54(9.9)
서비스직	22(4.0)	26(4.7)		
농, 임, 수산업	1(0.2)	20(3.6)		
기타	16(2.9)	28(5.1)		
부모 월소득		300만원 미만	131(23.9)	
		300~400만원 이상	209(38.1)	
		400만원 이상	208(.51)	

경우, 전업주부가 380명(69.3%)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월 소득은 3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이 209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2. 측정 도구

1)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영복(2002)의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김진호(2002)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질문지

는 교우와의 관계, 학습적응, 교사와의 관계, 학내 생활의 4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7문항씩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아동이 자신에게 일치하는 정도를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함을 나타낸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용에는 친구들과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친구에 대한 관심의 정도 및 친구들이 나에게 가지는 관심의 정도와, 아동과 교사와의 친숙하고 조화로운 관계정도, 긍정적 감정의 표현, 가르침에 대한 아동의 반응, 도움을 청하려는 태도가 포함된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대한 흥미도,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 과제에 대한 성실성, 공부할 때의 어려움과 학교생활이 아동에게 주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생활하는 정도와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 일치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2) 아동의 자아탄력성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Block(1969)이 개발한 CCQ(The California Child Q-Test)에서 자아탄력성 요인 부분을 사용한 백명주(2005)의 질문지를 사용 하였다.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Eisenberg와 동료들(1996)이 선정한 23문항만 CCQ(The California Child Q-Test)에서 추출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부모와 교사가 평정할 수 있는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 양육자를 어머니로 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내용에는 아동이 가지는 융통적이며 적응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순수한 자아탄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숨김없고 솔직하게 하는 자신감과 확신의 정

도, 긴장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얼마나 쉽게 돌아오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지, 생활 속에서의 얼마나 생동감과 호기심을 보이는지, 스스로 하려는 독립심과 자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지 등의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이 포함된다. 아동의 자아탄력성 척도의 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 일치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3)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alberstadt와 동료들(1995)이 개발한 정서 표현성 척도(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김호정(2001)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정서적 경향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자기보고식으로 되어 있고, 긍정적 정서(23문항)와 부정적 정서(17문항)를 측정하는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가정에서 정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표현을 하는지를 Likert식 7점 척도로 반응 하게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함을 나타낸다. 긍정적 정서 영역은 '가족에게 깊은 애정이나 사랑을 표현 한다'와 같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문항을, 부정적 정서 영역에는 '별거 아닌 일에도 순간적으로 화를 낸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문항이 포함된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척도의 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 일치도는 <표 3>과 같다.

4) 아동의 사회적지지 지각

연구대상 아동들이 가족과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를 어느 정도 지각하는 가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1996)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지각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이루어

〈표 3〉 측정 도구의 문항수와 내적 일치도

요 인		문항수	Cronbach's α
학교 생활 적응	친구 관계	7	.81
	교사 관계	7	.76
	학습 적응	7	.72
	학내 생활	7	.79
	전 체	28	.89
자아탄력성	전 체	23	.84
어머니 정서표현성	긍정적 정서표현	23	.92
	부정적 정서표현	17	.87
	전 체	40	.87
사회적 지지 지각	친구지지	8	.82
	가족지지	8	.85
	교사지지	8	.82
	전 체	24	.77

어져 있으며,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세 개의 하위요인이 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친구, 가족,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를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지지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 일치도는 <표 3>에서 제시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아동 변인, 부모 변인, 사회변인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F 검증(ANOVA), Lsd 검증, Pearson의 상관분석,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아동 변인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성별, 학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F 검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혹은 낮아짐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정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 <표 5>, <표 6>과 같다.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전체)은 남아($M=3.33$, $SD=.37$)가, 여아($M=3.28$, $SD=.36$)보다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영역인 교사관계($F=8.05$, $p<.001$), 학내생활($F=6.36$,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Lsd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사관계에서는 4학년($M=3.78$, $SD=.73$)이 5학년($M=3.73$, $SD=.73$)과 6학년($M=3.49$, $SD=.74$)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내생활에서는 5학년($M=3.86$, $SD=.76$)이 6학년($M=3.61$, $SD=.68$)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친구관계, 학습적응, 학교생활적응(전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전체)($r=.10$, $p<.05$)과 비교적 낮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하위요인인 학습적응($r=.14$, $p<.01$)과, 학내생활($r=.12$,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내생활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 있어 상관계수가 .12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p<.01$ 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은 많은 사례수가 영향을 주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부모 변인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모 연령, 부모 교육수준, 어머니 정서표현성, 가정 월소득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F*검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에 제시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전체)에서 비취업모($M=3.31, SD=.37$)가, 취업모($M=3.30, SD=.35$)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모 연령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이 아버지 연령에 따라서는 하위 영역인 학습적응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37, p<.05$)가 나타났고, 아버지의 연령이 43세 이상인 경우($M=3.43, SD=.78$)가 42세 이하인 경우($M=3.27, SD=.81$)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습적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은 하위 영역인 학습적응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3.37, p<.001$)를 보였고, 어머니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M=3.46, SD=.77$)가 39세 이하인 경우($M=3.23, SD=.81$)보다 점수가 높아,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습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9>에서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라 하위 영역인 교사관계($t=-2.88, p<.01$), 학습적응($t=-3.38,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사관계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M=3.69, SD=.74$)가 고졸이하인 경우($M=3.49, SD=.75$)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습적응에서도 대졸이상인 경우($M=3.43, SD=.82$)가 고졸이하인 경우($M=3.19, SD=.73$)보다 점수가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

<표 4> 성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N=548$)

학교생활적응	성별(N)		여아(269)		t값
	남아(279)	여아(269)	M	SD	
친구관계	4.01	.77	3.93	.71	1.26
교사관계	3.67	.72	3.59	.77	1.34
학습적응	3.35	.81	3.36	.79	-.23
학내생활	3.76	.75	3.71	.73	.78
학교생활적응(전체)	3.33	.37	3.28	.36	1.48

<표 5> 학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N=548$)

학교생활적응	학년(N)	M	SD	F	Lsd
친구관계	4(94)	3.96	.83		
	5(207)	4.01	.75	1.87	
	6(247)	3.91	.69		
교사관계	4(94)	3.78	.73		a
	5(207)	3.73	.73	8.05***	b
	6(247)	3.49	.74		b
학습적응	4(94)	3.48	.79		
	5(207)	3.38	.87	2.16	
	6(247)	3.29	.73		
학내생활	4(94)	3.77	.81		a b
	5(207)	3.86	.76	6.36**	a
	6(247)	3.61	.68		b
학교생활적응(전체)	4(94)	3.31	.42		
	5(207)	3.33	.35	.58	
	6(247)	3.29	.36		

** $p<.01$ *** $p<.001$

a, b, c : Lsd 검증결과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표 6>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계수 ($N=548$)

학교적응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친구관계		-.01
교사관계		.05
학습적응		.14**
학내생활		.12**
학교생활적응(전체)		.10*

* $p<.05$ ** $p<.01$

〈표 7〉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N=548)

학교생활적응	모취업유무(N)		취업모(168)		비취업모(380)		t값
	M	SD	M	SD	M	SD	
친구관계	3.97	.75	3.97	.73			-.03
교사관계	3.56	.79	3.66	.79			1.51
학습적응	3.28	.78	3.39	.80			1.51
학내생활	3.70	.76	3.74	.73			.57
학교생활적응(전체)	3.30	.35	3.31	.37			.35

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전체)과 학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어

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전체)($r=.15, p<.001$)과 하위영역인 친구관계($r=.20, p<.001$), 교사관계($r=.13, p<.01$), 학내생활($r=.1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과는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친구관계($r=-.13, p<.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 월소득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관계($F=3.77, p<.05$), 학습적응($F=8.00, p<.001$), 학내생활($F=3.99, p<.05$), 학교생활적응(전체)($F=3.2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Lsd 검증을

〈표 8〉 부모 연령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N=548)

학교생활적응	연령(N)	아버지				t값	어머니				t값
		42세이하(249)		43세이상(299)			39세이하(239)		40세이상(309)		
		M	SD	M	SD		M	SD	M	SD	
친구관계		3.96	.77	3.98	.72	-.37	3.97	.76	3.97	.73	.03
교사관계		3.62	.75	3.64	.74	-.44	3.58	.78	3.67	.72	-1.43
학습적응		3.27	.81	3.43	.78	-2.37*	3.23	.81	3.46	.77	3.37**
학내생활		3.72	.73	3.74	.75	-.42	3.71	.78	3.74	.71	-.46
학교생활적응(전체)		3.30	.39	3.31	.34	-.53	3.30	.39	3.32	.35	-.77

* $p<.05$ ** $p<.01$

〈표 9〉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N=548)

학교생활적응	연령(N)	아버지				t값	어머니				t값
		고졸이하(164)		대졸이상(384)			고졸이하(286)		대졸이상(262)		
		M	SD	M	SD		M	SD	M	SD	
친구관계		3.91	.74	4.00	.74	-1.27	3.99	.72	3.95	.77	.71
교사관계		3.49	.75	3.69	.74	-2.88**	3.60	.73	3.67	.76	-1.12
학습적응		3.19	.73	3.43	.82	-3.38**	3.29	.79	3.42	.80	-1.95
학내생활		3.65	.78	3.77	.72	-1.73	3.71	.73	3.76	.75	-.82
학교생활적응(전체)		3.27	.38	3.32	.55	-1.64	3.31	.36	3.30	.37	-.38

* $p<.05$ ** $p<.01$

〈표 10〉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계수 (N=548)

학교적응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친구관계	.20***	-.13**
교사관계	.13**	-.08
학습적응	.08	.00
학내생활	.16***	-.03
학교생활적응(전체)	.15***	-.08

p<.01 *p<.001

실시한 결과, 학교생활(전체)에서 월소득 300만원 미만(M=3.24, SD=.40)보다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M=3.32, SD=.38), 400만원 이상(M=3.33, SD=.32)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교사관계에서는 월소득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M=3.70, SD=.75), 400만원 이상(M=3.66, SD=.73)이 월소득 300만원 미만(M=

3.48, SD=.78)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습적응에서는 300만원 미만(M=3.12, SD=.75)보다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하(M=3.46, SD=.83)와 400만원 이상(M=3.39, SD=.77)이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내생활에서도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하(M=3.80, SD=.75)와 400만원 이상(M=3.76, SD=.67)이 300만원 미만(M=3.58, SD=.80)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사회변인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사회 변인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 지각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전체)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지각의 하위 영역 중 친구지지

〈표 11〉 부모 월소득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N=548)

학교생활적응	월소득(N)	M	SD	F	Lsd
친구관계	300만원 미만(131)	3.95	.77	1.20	
	300~400만원 미만(209)	4.00	.80		
	400만원 이상(208)	3.96	.66		
교사관계	300만원 미만(131)	3.48	.78	3.77*	a
	300~400만원 미만(209)	3.70	.75		b
	400만원 이상(208)	3.66	.71		b
학습적응	300만원 미만(131)	3.12	.75	8.00***	a
	300~400만원 미만(209)	3.46	.83		b
	400만원 이상(208)	3.39	.77		b
학내생활	300만원 미만(131)	3.58	.80	3.99*	a
	300~400만원 미만(209)	3.80	.75		b
	400만원 이상(208)	3.76	.67		b
학교생활적응(전체)	300만원 미만(131)	3.24	.40	3.21*	a
	300~400만원 미만(209)	3.32	.38		b
	400만원 이상(208)	3.33	.32		b

*p<.05 **p<.01 ***p<.001

a, b, c : Lsd 검증결과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표 12>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계수 (N=548)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 지각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사회적지지 지각 (전체)
친구관계		.79***	.40***	.46***	.68***
교사관계		.45***	.37***	.72***	.64***
학습적응		.30***	.17***	.35***	.34***
학내생활		.55***	.36***	.46***	.54***
학교생활적응 (전체)		.65***	.37***	.56***	.68***

*** $p < .001$

는 친구관계($r=.79, p<.001$), 교사관계($r=.45, p<.001$), 학습적응($r=.30, p<.001$), 학내생활($r=.55, p<.001$),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전체)($r=.6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 지각의 하위영역 중 가족지지는 친구관계($r=.40, p<.001$), 교사관계($r=.37, p<.001$), 학습적응($r=.17, p<.001$), 학내생활($r=.36, p<.001$),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전체)($r=.3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교사지지는 친구관계($r=.46, p<.001$), 교사관계($r=.72, p<.001$), 학습적응($r=.35, p<.001$), 학내생활($r=.46, p<.001$),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전체)($r=.5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아동 변인, 부모 변인, 사회 변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 변인(성별, 학년, 자아탄력성), 부모 변인(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모 연령, 부모 교육수준, 어머니 정서표현성, 부모 월소득), 사회 변인(사회적지지 지각)이 가지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고 대부분 $r=.50 \sim r=.60$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표 14>에 제시한 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중 친구관계를 설명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66%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beta=.70, p<.001$)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가족지지($\beta=.11, p<.001$), 교사지지($\beta=.10, p<.01$), 아버지 연령($\beta=.07, p<.05$),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beta=-.06, p<.05$)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교사관계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56%로 나타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지지($\beta=.61, p<.001$)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beta=.13, p<.001$), 가족지지($\beta=.11, p<.01$), 학년($\beta=.08, p<.05$)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아동의 학습적응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2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지지($\beta=.24, p<.001$)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다음은 친구지지($\beta=.18, p<.001$), 어머니 연령($\beta=.17, p<.01$), 학년($\beta=-.10, p<.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내생활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변수들의 설명력은 3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beta=.40, p<.001$)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교사지지($\beta=.21, p<.001$), 가족지지($\beta=.14, p<.001$), 자아탄력성($\beta=.09, p<.0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전체)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변인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전체)에 대한 설명력이 53%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beta=.46, p<.001$)가 아동의

(표 13)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독립변인들 간의 적률상관계수

(N=548)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성별 ¹⁾																	
2. 학년	.01																
3. 자아탄력	.02	.14**															
4. 모 취업 유무 ²⁾	-.04	.04	-.15**														
5. 부 연령	.03	.21***	-.02	.07													
6. 모 연령	-.04	.26***	.07	.10*	.67***												
7. 부 교육수준	-.02	-.18***	-.18**	-.02	-.05	-.06											
8. 모 교육수준	.01	-.13**	-.13*	.07	-.07	.01	.54***										
9. 모 긍정정서	.03	-.10*	-.03	.04	-.01	-.05	.07	.12**									
10. 모 부정정서	-.01	.12**	.39***	-.19***	.02	-.02	.09*	.03	-.12**								
11. 가정 월소득	-.03	.07	.28***	.07	-.01	.07	.30***	.26***	-.06	.16***							
12. 친구지지	-.02	-.05	.03	-.01	.02	-.02	.05	-.01	.19***	-.09*	.01						
13. 가족지지	-.04	-.13**	-.03	.03	.04	.04	-.02	-.04	.21***	-.11**	-.00	.36***					
14. 교사지지	-.06	-.10*	.10*	-.08	-.01	-.03	.08*	.02	.15***	-.03	.08	.46***	.34***				
15. 친구관계	-.05	-.05	-.00	.00	.05	-.02	.05	-.03	.20***	-.13**	.00	.79***	.40***	.46***			
16. 교사관계	-.06	-.16***	.05	-.07	.03	-.01	.12**	.05	.13**	-.08	.08	.45***	.37***	.72***	.50***		
17. 학습적응	.01	-.09*	.14**	-.07	.11*	.15**	.14**	.08	.08	.00	.12**	.30***	.17***	.35***	.27***	.55***	
18. 학내생활	-.03	-.11*	.12**	-.24	.01	.00	.07	.04	.16***	-.03	.08	.55***	.36***	.46***	.62***	.64***	.60***

* $p < .05$ ** $p < .01$ *** $p < .001$

1) 남아=0, 여아=1

2) 취업=0, 비취업=1

학교생활적응(전체)에 대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고, 그 다음은 교사지지($\beta=.30, p<.001$), 가족지지($\beta=.10, p<.01$), 자아탄력성($\beta=.07, p<.05$) 순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변인(성별, 학년, 자아탄력성), 부모 변인(어머니 취업유무, 부모 연령, 부모 교육수준, 어머니 정서표현성, 부모 월소득), 사회 변인(사회적지지 지각)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간의 차이 및 관계, 그리고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변인, 부모 변인, 사회 변인과 학교 생활적응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아동 변인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이연실, 2004)와 일치하는 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김송자, 2005)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남아가 여아가 각각 더 잘 적응하는 학교생활의 하위 영역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를(차유림, 2000) 감안해 볼 때,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변인이 학교생활적

〈표 14〉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회귀분석

(N=548)

독립변인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습적응	학내생활	전체
		β	β	β	β	β
아동 변인	성별 ¹⁾	-.03	-.01	.03	-.01	-.03
	학년	.03	.08*	-.10*	-.07	.03
	자아탄력성	-.00	.01	.09	.09*	.07*
부모 변인	모 취업유무 ²⁾	-.00	-.03	-.05	-.00	.01
	부 연령	.07*	.05	.02	.00	.02
	모 연령	-.06	-.00	.17**	.02	-.02
	부 교육수준	.04	.04	.07	-.00	.03
	모 교육수준	-.03	.01	.01	.01	-.04
	모 긍정정서	.02	-.02	.02	.02	-.00
	모 부정정서	-.06*	-.05	-.33	-.00	-.06
	부모 월소득	.01	.03	.05	.04	.06
사회 변인	친구지지	.70***	.13***	.18***	.40***	.46***
	가족지지	.11***	.11**	.00	.14***	.10**
	교사지지	.10**	.61***	.24***	.21***	.30***
상 수		.33	.81	-.36	.43	1.57
R ²		.66	.56	.21	.39	.53
F		73.98***	49.14***	9.98***	24.25***	42.29***

* $p < .05$ ** $p < .01$ *** $p < .001$

1) 남=0, 여=1

2) 취업=0, 비취업=1

응 측정 정도에 영향을 미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특별활동, 인지영역, 학교분위기, 학교환경 등에서는 남아가 적응을 잘 하나 교우관계, 학교규칙 등에 관한 학교생활 전반은 여학생이 더 잘한다는 선행연구(윤종옥, 1997)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남아와 여아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관계영역과 인지·학습적 영역, 분위기, 환경 등에 대한 내용이 비슷하게 포함된 영역으로 구성되어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하위영역인 교사관계와 학내생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관계에서는 4학년이 5학년과 6학

년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내 생활에서는 5학년이 6학년보다 잘 적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더 만족한다는 채경림(200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학년이 될 수록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업욕구가 많아져 과중한 과외수업과 학습지, 성적에 대한 불안감, 학교 성적순으로 평가받게 되는 배치교사의 영향(김길임·심희옥, 2002)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러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전체)과 하위 영역인 학습적응, 학내생활의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을 연구한 신윤자(200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전체)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하위 영역인 친구관계, 교사관계에는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동의 적응행동이 개인적 요인과 환경 간에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Lazarus, 1961), 개인 스스로가 적응을 해야 하는 학습적응이나 학내생활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 변인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비교한 김희수(200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Belsky(1984)는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과 질, 직업생활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어머니의 취업유무로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았기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하위 영역인 학습적응에서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교사관계와 학습적응에서 적응력이 높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노미숙(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으로 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정에서 아동에게 학습의 조력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서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전체)과 하위영역인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내생활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Eisenberg와 동료들(2000)은 긍정적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하는 어머니의 아동은 문제해결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더 잘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성공적으로 조절하여 사회적으로 적응적이 된다고 하여, 가정 내에서의 정서적 경험이 자기 조절 능력을 통해 학교를 포함한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월소득에 따른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전체)과 하위 영역인 교사관계, 학습적응, 학내생활에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이춘기, 2005)와 일치한다. 부모의 월 소득이 낮은 경우 경제적 저소득으로 인해 긴장된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부모의 심리·정서적 상태 그리고 이로 인한 부모의 지지적이지 못한 양육행동과 심리적 과정들이 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며(민하영·권기남, 2004), 월수입이 높은 경우 경제적인 안정으로 인해 아동에게 주어지는 각종 과외지도의 기회제공이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고, 물질적인 투자 등으로 아동의 대인관계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부모 월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변인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아동이 친구와 가족,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여길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전체)과 모든 하위 영역에서 높은 적응력을 보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하는(이수경, 2004)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아동 변인, 부모 변인, 사회 변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 변인의 친구지지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이 이루어짐을 보고한 박은주(2004)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영역인 친구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지지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이 받는 친구지지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변인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친구들에게 받는 사랑과 관심, 물질적 원조 등 긍정적 자원이 아동의 친구관계를 조화롭고 긍정적으로 맺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의미한다. 교사관계 적응에서는 교사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 보였는데, 직접적으로 교사에게서 받는 인정과 사랑 등의 긍

정적 자원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적응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교사지지로 나타났고, 학내생활에서는 친구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 넓은 시야를 가지고 각종 변인들의 영향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요인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 영역별 적응에 대한 차이도 생각해 보아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임을 고려하여 친구관계와 가족관계, 교사관계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과 안내,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되어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대상 및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친구·교사관계 문항이 사회적지지 척도의 친구·교사지지의 문항과 서로 다른 성격의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해석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문항의 유사성을 고려한 척도의 선정과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지각과 보고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와 가정의 주 양육자의 지각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

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 변인, 부모 변인, 사회 변인과 부모 변인 중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알아보고,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동시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아동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생활 적응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또는 대책 마련을 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근중(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권영복(2002). 교사의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길임 · 심희옥(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23(5), 139-151.
- 김덕건(199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문신(200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승자(2005).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승봉(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진호(2002).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및 대화방 활용 실태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호정(200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희수(2002). 부모의 맞벌이여부가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노미숙(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류운석(1996). 초등학교 도시 전입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 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박금란(1998). 불안 및 귀인성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소혜(1995). 국민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은주(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 부모, 친구,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백명주(2005).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능력 및 적응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송영경(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신운자(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신진희(2005).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유복귀희(2003). 아동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유성경·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윤종옥(1997). 가정의 과정환경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수경(2004).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연실(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주일·황석현·한정원·민경환(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이춘기(2005).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장우민(2004). 청소년이 감각추구 성향과 학교적응 및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정미선(2003). 초등학교 보건실 이용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차유립(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경립(2004). 거주지역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최재숙(2001).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추이현(2002).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박사학위논문.
- 현은민·박혜영(2005).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29.
- Bagwell, G.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elsky, J., Cernek, R. M., & Spanier, G. B.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reading*. MassacPu.,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Block, J. H., & Block, J. (1969). The california child Q-tset,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In mimeo).
- Block, J., & Krema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DeRoiser, M. E., & Kupersmidt, J. B. (1991). Costarican children's percepts of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56-662.
- Eisenberg, N., Fabes, R. A., Karbon, M., Murphy, B. C., Wosinski, M., Polazzi, L., Carlo, G., & Juhnke, C. (1996). The relation of children's dispositional prosocial behavior to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3), 974-992.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36-157.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Kaplan, H. B., Robbins, C., & Martin, S. S. (1983).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adults : self-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 and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3), 230-244.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azarus, R. S. (1961). *Adjust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McGraw-Hill.
- Mitchell, R. E., Billings, A. G., & Moos, R. H. (1982).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 Implications for prevention program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2), 77-98.

2007년 4월 30일 투고 : 2007년 7월 6일 채택